

#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 속 마비와 탈출의 변증법: ‘욕망 드러내기,’ ‘말대꾸하기,’ 그리고 ‘타락하기’

이 영 심

## I. 들어가며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가 “마비의 중심”(Stewart 41)이자 “마비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Platt 24) 도시로 규정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은 구체적이고 “물리적 위치 그 자체인 ‘공간’(space)”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조직된 ‘장소’(place)”(Jang 104, 필자강조)이다. 그러므로 『더블린 사람들』(*Dubliners*)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마비”(Lernout 206)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은 바로 더블린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의 ‘탈출’이자, 동시에 ‘무기력하고 활기 없는’ 더블린이라는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더블린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구속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한다.

‘마비’된 ‘공간’과 ‘장소’로부터의 ‘탈출’이 가장 부각되는 장면은 바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Stephen)이 일기형식을 활용한 1인칭 시점 서사를 활용하여 “교회, 국가, 관습으로부터의 탈출”(Requleme 55)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와 고양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결말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환영한다, 오 **삶**이여! 나는 **경험의 현실**을 백만 번 조우하고,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나의 민족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버리기 위해 간다! (P 275-76, 필자강조)

감탄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킨 스티븐의 탈출은, 물리적 ‘공간’을 떠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더블린이라는 ‘장소’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남,’ 즉,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탈출’을 의미한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삶’과 ‘경험의 현실’은, 내세를 강조하는 가톨릭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렇게 삶과 경험의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스티븐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을 마주하거나 현실과 소통하는 데 있어 실패”(Barlow 40)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낸다. 즉, 이 탈출은 유년기에서부터 대학시절까지 “가톨릭적 유산에 지배당했던”(3 Potts) 스티븐이 여태껏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여겼던 성직자의 권위”(Eide 57)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아울러 “어린 시절의 구속으로부터 탈출”(Lernout 114)하여, 그가 자주적이고 독립적 주체로 성장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일랜드 탈출을 앞두고 한껏 고양된 감정을 드러내는 스티븐과는 대조적으로 “실패한 탈출자들로 가득”(Rabaté 171)한 『더블린 사람들』은 “판에 박힌 일상과 사유 방식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혀 있는”(Mahaffey 37) 더블린 사람들의 “감힌 의식”(Nolan 25)이 펼쳐진다. 특히 「이블린」<sup>1)</sup>

1) Eveline의 한국어 표기는 크게 ‘에블린’과 ‘이블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블린으로 표기한다. 첫 번째 근거는 이 단편의 제목인 Eveline이 특별한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대 Eveline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

(Eveline)의 이블린은 이중의 억압을 받는 존재, 즉, “억압받는 자들에게 억압받는 존재”(Lawrence 79)로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수동적이고 순종적인”(Wicht 122) 인물이자, 더블린(혹은 아일랜드) 탈출에 실패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밖에도 도란(Doran), 더피(Duffy), 찬들러(Chandler), 패링턴(Farrington) 역시 아일랜드 탈출의 욕망을 가졌지만 실패하거나, 혹은 탈출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희망이나 미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무기력의 전형”(Robinson 50)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더블린(아일랜드)을 탈출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마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대 아일랜드가 영국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가톨릭의 속박, 가톨릭에 기반을 둔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이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가정)은 바로 이러한 억압의 복합적 기제들이 구체적으로 얽혀서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블린은 “집이라는 감옥의 죄수”(Ingersoll 102)로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는 욕망을 포기한 채, 아버지의 폭력의 위협이 도사린 ‘집’에 주저앉는다. 도란은 독신으로 살고 싶은 욕망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Mahaffey, *Collaborative* 153)에 굴복하여 폴리(Polly)와 결혼하여 억지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순응주의자 사무원”(Eide & Mahaffey 165)인 찬들러는 시를 쓰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고, 가구 할부금을 내는 ‘집’에 묶여 있을 것이다. 가톨릭의 도덕성을 내재화시킨 더피는 육체적 욕망을 드러낸 시니코 부인(Mrs. Sinico)을 밀어냈으며, 어쩌면 그는 무채색 가구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그의 ‘방’에 고립될지도 모른다. 즉, 이들은 더블린을 탈출하지 못한 채, 집과 가정에 속박되어 판에 박힌 삶을 무기력한 ‘마비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언급한대로 스티븐이 그를 속박하던 온갖 억압과

---

일랜드 여성들의 보편적 삶을 다룬다고 할 때, ‘이블린’이라는 이름 속에 최초의 여성이자 여성을 대표하는 ‘Eve’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근거는 David G. Wright에 따르면, Eveline의 의미가 “꼬마 이브”(248)이기 때문이다.

구속으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하는 것에 덧붙여서 짚어볼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스티븐이 5장 결말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탈출을 선언하기 전까지, 자신을 속박하는 가톨릭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과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해왔다는 점이다. 유년기의 스티븐이 개신교도의 딸인 에일린(Eileen)과 결혼하겠다고(*P* 4)고 말한 것<sup>2)</sup>, 부당한 체벌을 내린 돌란 신부(Dolan)를 교장 선생님에게 고자질 한 것(*P* 59)<sup>3)</sup>, 청소년기의 스티븐이 창녀와의 성적 관계를 가진 것(*P* 108) 등이 그 예이다. 비록 스티븐의 이 시도들이 가톨릭의 처벌 위협에 굴복하거나 혹은 가톨릭과 화해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을 지라도, 이것들이 쌓여 마침내 스티븐이 세속의 사제가 되어 ‘죄’를 짓고 ‘타락’하겠다고 밝히게 되는 것(*P* 175), 즉, 가톨릭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시도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블린 사람들』의 ‘탈출 실패자들’의 탈출 시도 자체가 마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적 탈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탈출하고자 하는 대상, 즉,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대상이 바로 가톨릭이라는 점도 스티븐과 공통적인 측면이다. 즉, 이들 역시 가톨릭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대신에, 가톨릭이 금기시하는 성적 욕망을 드러내거나,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거나, 혹은 ‘말대꾸하기’를 통해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의지와 욕망을 가진 독립적 존재임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가장 수동적인 인물인 이블린조차도 어머니와 같은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는 욕망(*D* 30)을 가지며, 유부녀인 시니코 부인은 육체적 욕망을 드러내며(*D* 107), 하녀 릴리는 대학교수인 가브리엘에게 말대꾸를 하며(*D* 178), 직원

2) 이 말을 할 때 스티븐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에일린과 결혼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톨릭교도가 아닌 개신교도와의 결혼을 언급한 것의 함축성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스티븐이 가톨릭을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

3) ‘고자질’이 갖는 의미는 스티븐이 ‘고자질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어겼다는 점에서, 외부 권위에 대한 저항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패링턴은 알레인 사장에게 말대꾸를 하며(D 87), 늙은 케이트(Kate) 숙모도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한 일에 대해 비판의 말(D 195)을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비록 ‘마비’된 더블린을 공간적으로는 ‘탈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즉, 사회 체계나 권력관계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의 다양한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마비의 양상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이 겪는 다층적 억압의 양상, 궁극적으로 탈출을 가능케 했던 ‘실패한 탈출 시도들,’ 이와 비견될 수 있는 『더블린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의 ‘욕망’ 표출, 그리고 ‘말대꾸’로 발현된 수동성 탈출의 의지와 그 효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비록 이들이 “마비의 중심으로 보이는 도시”(SL 83)인 더블린(혹은 아일랜드)에서 물리적으로 탈출하는 데는 실패했을 지라도, 의식적인 탈출에는 일시적인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II. 가톨릭 종교와 가부장제적 가치관에 속박된 여성들의 마비 양상과 탈출 시도: ‘욕망 드러내기’와 ‘말대꾸하기’

이블린은 더블린을 탈출하는데 실패하는 대표적 여성 인물이다. 그녀는 연인 프랭크(Frank)와 함께 아일랜드를 떠나는데 동의했지만, “딸로서의 의무와 탈출의 욕망 사이에서의 심리적 갈등”(Nash 225)을 겪다가 막상 떠나야 할 순간이 오자 공포에 차서 주저앉고 마는 인물이다. 이블린이 마지막 순간에 느낀 공포는 어디서 기인하며, 그녀는 왜 떠나지 못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프랭크와 밤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로 떠나기로 한 당일 저녁에서 시작되는 「이블린」의 도입부를 살펴보자.

그녀는 저녁이 거리로 침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창문 커튼에 기대고 있었는데, 콧구멍 속으로 먼지 낀 크레톤 냄새가 들어왔다. 그녀는 **피곤했다**. (D 29, 필자강조)

이블린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설렘 대신에 ‘피곤한’ 상태로 등장하는데, 특히 ‘먼지 낀’이라는 단어는 외부 공간의 갑갑함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의 갑갑함까지 드러낸다. 여기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는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까지 결합되어 답답한 그녀의 심리 상태를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이블린의 심리 상태는 결말 부분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상태로 진행된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프랭크 쪽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무기력한** 짐승처럼 **수동적인** 모습이였다. 그녀의 두 눈에는 그에 대한 사랑이나, 작별의 표시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그가 누구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D 34, 필자강조)

여기서 ‘하얗게 질린 얼굴’과 ‘무기력한’ 그리고 ‘수동적인,’ 이 세 구절들은 그녀의 ‘마비’된 의식 상태를 부각시켜 드러내는데, 도입부에서 이미 “창문틀에 갇힌” 모습으로 등장한 그녀는 “결말 부분에서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마비 상태”(Seidel 54)로 무기력한 모습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이블린의 무기력한 모습과 대조되는 부분은 바로 “먼 미지의 나라에서는 . . . 어머니와 같은 대접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존중해줄 것”(D 30)을 기대하며 “외국에서의 모험을 꿈꾸던”(Lernout 121) 이블린의 모습이다. 여기서 이블린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광기 속에서 생을 마감한”(D 33)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즉, 이블린은 “가슴울렁증”(D 30)을 야기한 아버지의 폭력과 정신적 학대, 가족을 보살피기 위한 힘든 노동만이 존재하는, 그리고 프랭크와의 연애가 금지된 삭막한 “가정의 구속을 떠날 예정”(Kochis & Lusty103)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공포의 충동** 속에서 벌떡 일어섰다. **탈출해야해!**

그녀는 **탈출해야만 한다!** 프랭크가 아마도 그녀를 구해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생명을 주고, 아마도 사랑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살고 싶었다**. . . . 그녀는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프랭크는 팔로 그녀를 안고, 껴안아 줄 것이다. 그가 그녀를 구해 줄 것이다. . . . 그녀는 . . . **곤경의 미로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 . . **그녀의 의무가**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 (D 33, 필자강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블린은 어머니의 죽음 장면을 떠올린 직후, 충동적으로 더블린을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박되는데, 두 번 반복되는 ‘탈출’이라는 단어와, 의무와 당위의 조동사 ‘must,’ 그리고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는 느낌표는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노출한다. 자신 역시 어머니처럼 평생 희생하다가 광기 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 이블린은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위해,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충동’적으로 공포와 탈출의 욕망을 인식하는 이 순간은 바로 그녀가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그런데, 다음 순간 이블린은 신에게 자신의 ‘의무’를 알려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어머니의 임종 시에 아버지와 동생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어머니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D 33)을 떠올리고, 이것은 다시 거실에 걸린 메리 알라코크(Mary Alacoque) 수녀에게 바치는 맹세문(D 30)에서 여성의 의무로 강조하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Gifford 49)으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이 맹세문은 “그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상징”(Wicht 127)적 역할을 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회나 신앙심에 의존하는 정도가 훨씬”(박윤기 106) 컸던 당시의 상황에서, 가톨릭은 이블린의 탈출을 가로막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녀가 더블린 탈출을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탈출과 탈출 이후의 삶이 전적으로 프랭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프랭크는 그녀에게 구원과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녀를 더욱 불행한 삶으로 이끌 수도 있다. 당시 더블린에서 가장 가까운 영국의 항구인 리버풀(Liverpool)이 노예무역으로 악명을 떨쳤던 점과 프랭크의 직업이 선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러한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와 부사 ‘아마도’는 이것을 뒷받침한다. 즉, 만약 프랭크가 먼 타국에서 그녀를 노예로 팔아넘긴다면 그녀는 더블린에서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블린의 상황은 아일랜드를 떠나든 혹은 아일랜드에 남든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이블린과 같은 처지에 놓인 당대 여성들의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드러낸다. 즉, “학대적인 가정과 이데올로기의 구조로 인해 무기력한 짐승처럼 갇혀 있는”(Boheemen 201) 이블린과 같은 당대 젊은 여성들은 아일랜드를 독자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설사 탈출한다 해도 먼 타국에서 아일랜드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이는 이블린과 같은 또래인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의 폴리나 「죽은 사람들」(“The Dead”)의 릴리(Lily)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블린이 아일랜드 탈출에 대한 욕망, 즉, 어머니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폴리나 릴리 역시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폴리가 적극적으로 도란을 유혹하는 장면과 릴리가 가브리엘에게 말대꾸를 하는 장면이다. 폴리는 목욕을 한 날 밤에 촛불에 불을 붙인다는 핑계로 험령한 침실용 가운을 입고 향수를 뿌린 후에 도란의 방을 방문(D 62)하여 그와 잠자리를 하는데 성공하며, 이를 빌미로 도란과의 결혼을 이끌어낸다. 물론 도란은, 폴리를 “저속하다”고 여기며, 문법적으로 틀린 그녀의 언어나 “평판이 좋지 않은 그녀의 아버지”와 “하숙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때문에 “가족들이 그녀를 경멸할 것”(D 6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도란의 “본능은 결혼하지 말고 자유롭게 남아 있으라고 촉구”(D 61)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으로 과연 폴리가 행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리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도란을 남편으로 쟁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폴리는 자신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육체적 순결을 강조하



는 가톨릭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뚤어진 마돈나”(D 57)의 이미지를 실현시켜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모칸(Morkan) 자매 집에서 하녀로 일하는 릴리 역시 이블린보다 나은 것이 없는 처지로, 파티의 시작부터 “밭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D 75), 파티 내내 음식을 내오느라 바쁜데, 특히 ‘Conroy’라는 가브리엘의 성을 발음할 때, 3음절로 발음(D 177)함으로써 그녀가 당대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릴리가 대학교수인 가브리엘에게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것을 통해 주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브리엘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어느 화창한 날 네 결혼식에 참석할 날이 멀지 않았겠네, 그렇지 않니?”

어깨 너머로 가브리엘을 힐끗 돌아보더니 릴리가 **신랄한 어조**로 말했다. **“요즘 남자들이란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여자한테서 뭐라도 뜯어낼 궁리나 하는 작자들밖에는 없는 걸요.”** (D 178, 필자강조)

릴리는 가브리엘에게 ‘신랄한’ 어조로, 당대 남성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대꾸’를 통해 밝힘으로써 가브리엘을 당혹하게 만든다. 이처럼 릴리가 결혼이나 남성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당당하게 발화하는 장면을 통해, 비록 릴리가 여전히 그녀의 신분이며, 더블린이라는 공간을 벗어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순간만은 가톨릭과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강조하는 ‘여성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블린의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 무니 부인(Mrs. Moony)이나 패링턴 부인(Mrs. Farrington), 그리고 시니코 부인의 삶 역시,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광기로 마감한 이블린의 어머니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비’된 측면이 존재한다. 즉, 별거 이전의 무니 부인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D 56)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해야 했으며, 패링턴의 아내 역시 술에 취한 패링턴에게 괴롭힘을 당하며(D 93), 시니코 부인은 아내를 즐거움의 회랑에서 완전히 배제(D 106)한 외향선

선장 시니코 때문에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들 역시 완전히 수동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대 더블린 사회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니코 부인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더피와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육체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다.

시니코 부인은 더피에게 그의 생각을 글로 써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 . .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자신들에게 어둠이 내리는 것을 허용한 적이 많았다. . . .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그녀가 평상시와 달리 유달리 흥분한 징후를 보여주었던 어느 날 밤, 즉, 그의 손을 열정적으로 잡더니 자신의 뺨에 댄던 날 밤에 끝났다. (D 107, 필자강조)

이처럼 시니코 부인은 더피에게 출판하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며,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를 위해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흥분상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육체적 접촉’을 시도한다. 이는 초반에 시니코 부인에 대한 묘사에서 ‘지적인 면모,’ ‘뚜렷한 개성,’ ‘두 눈에 드러난 반항적 기질,’ ‘봉긋하게 드러난 풍만한 가슴’(D 105)을 부각시킨 부분과 정교하게 맞물린다. 시니코 부인은 대체로 ‘모성적 염려’로 더피를 보살피며, 마치 ‘고해신부’(D 106)처럼 더피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특히 초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반항적’(defiant)라는 단어는 그녀가 순종적인 여성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는데, 여기서 그녀가 더피에게 육체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당대 여성들에게 가톨릭이 요구한 육체적 순결과 가정에 충실하라는 의무에 대한 반항을 드러낸다. 비록 그녀는 이 행동 때문에, 가톨릭의 가치관을 내재화시킨 더피에게 일방적 관계단절을 당하고,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던 이 짧은 순간은 가톨릭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탈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무니 부인은 남편과의 별거 허락을 신부님으로부터 받아낸

이후에 하숙집 운영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톨릭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대신에, 오히려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가톨릭의 가치관을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딸 폴리와 육체적 관계를 가진 도란을 압박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가톨릭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폴리와 도란을 결혼시킨다. 그녀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동성을 강요하는 당대의 지배적 가치관에서 ‘탈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남성 인물들의 마비 양상과 탈출 시도: ‘술 취하기,’ ‘말대꾸하기,’ 그리고 ‘타락하기’

여성 인물들뿐만 아니라,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 역시 무기력하고 마비된 양상을 드러낸다. 남성 인물들은 특히 술에 취했을 때, 즉,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소년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애러비」(“Araby”)의 삼촌(D 15), 이블린에게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학대를 하는 이블린의 아버지(D 31), 아내를 고기 썬는 칼로 위협하는 「하숙집」(“Boarding House”)의 무니(D 56), 어린 아들을 때리는 「대응」(“Counterparts”)의 패링턴(D 94)의 모습은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술과 더불어, 남성인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이다. 이처럼 “종교와 술은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두 가지 아편”(Mahaffey, *Collective* 3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여성들에게 가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했던 가톨릭은 남성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함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술은 가톨릭의 엄격한 틀에서 ‘탈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양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절에서는 ‘술 취하기,’ ‘말대꾸하기,’ 그리고 ‘타락하기’를 통한 남성인물들의 더블린으로부터의 탈출 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종교의 속박으로 인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도란이다. 그와 폴리의 결혼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폴리와 잠자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무니 부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무니 부인의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을 받은 도란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난다.

도란은 **일요일** 아침에 **정말 너무나도 불안했다**. . . . **손이 너무 불안정하게 떨려서** 그는 면도를 그만두어야 했다. . . . 2~3분마다 **안경이 뿌옇게 되는 바람에** . . . 전날 밤의 **고해성사**를 떠올리자 그는 격심한 고통을 느꼈다. **신부님**은 그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물었고, 중국에는 그의 **죄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지라 속죄를 통해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는 것에 거의 감사할 지경이었다. 이미 (폴리에게) **해를 가했다**. 폴리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것** 말고는 . . . **더블린은 너무나 좁은 도시였다**. . . . 폴리와 의 일은 분명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것이고, 사장 귀에도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다**. (D 60-61, 필자강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니 부인과의 담판을 앞둔 도란은 손이 떨려 면도를 포기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이다. 안경이 ‘뿌옇게’ 되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그의 심리적 불안감과 답답함을 드러내며, 이렇게 도란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로 ‘일요일,’ ‘고해성사,’ ‘신부님’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가톨릭의 권위 때문이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일요일은 종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일이기 때문에 도란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환하게 빛나는 초여름의 **일요일** 아침이었다. . . . **교회의 종들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혼자서 혹은 무리를 지어 **예배를 보려는** 사람들이 . . . **성경책과 자제하는 태도를 통해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을 드러내며, **교회 앞**의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D 58, 필자강조)

계속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 성경책, 예배, 교회는 도란에게 가톨릭 종교의 권위와, 폴리와 저지른 ‘죄,’ 그리고 자신의 고해 성사와 그것에 대해 신부가 이야기한 속죄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 앞서서 본 것처럼 신부는 도란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속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는 ‘폴리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것’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더블린은 ‘너무나 좁은 도시’이기 때문에 도란과 폴리에 관한 일은 모두에게 알려져, 가톨릭을 믿는 회사 사장이 그 일을 알게 될 경우, 그는 직장마저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죄어오는 가톨릭 종교의 압박 때문에 도란은 어쩔 수 없이 무니부인이 제안하는 폴리와 의 결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도란과 폴리의 일은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는 장치를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물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엄청난 ‘죄’로 규정하고, ‘속죄’를 강요하며, 그의 의사와 반하는 결혼까지 하게 만든다. 즉, 결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할 당사자 도란이, 덧에 걸린 짐승처럼 가톨릭의 압박과 이를 이용한 무니 부인의 계략에 떠밀려 마지못해 동의하는 모습은, ‘수동적이고’ ‘하얗게 질린’ 이블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무기력한 마비의 상태를 드러낸다. 그런데, 도란이 가톨릭의 이러한 억압의 상태에서 벗어난 순간은 그가 폴리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던 순간에 느꼈던 쾌락의 감정이었을 것이며, 도란이 이러한 마비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톨릭이 그에게 강조하는 이 가치관으로부터 ‘탈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챌들러 역시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갤러허(Gallaher)와의 만남에서 도덕성과 금주에 대한 그의 집착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활기차지.” 이그네이셔스 갤러허가 말했다.  
 “파리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의 가치를 믿거든. 자네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나?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파리로 가야만 하네. . . .”  
 꼬마 챌들러는 술잔을 4-5 모금 훌쩍거린 후에 말했다.

“말해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파리가 그렇게 **부도덕하다**는 것이 사실인가?”(D 72, 필자 강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생을 즐기는 것의 가치’를 믿고, ‘활기’차게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깬러허와는 대조적으로 쉐들러는 술을 ‘홀짝’거릴 뿐이며, 파리가 도덕적인지의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깬러허에게는 ‘모든 곳이 부도덕적인 면모’(D 72)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도시가 더 도덕적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더블린을 한 번도 떠난 본적이 없는 ‘우물 안 개구리’와도 같은 쉐들러는 가톨릭이 강조하는 ‘도덕성’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더블린을 떠나, 즉, 가톨릭의 영향을 벗어나 살아온 깬러허와의 만남은 쉐들러에게 ‘작은 구름’과도 같은 파문을 일으켜서 쉐들러에게 자신이 꿈꿔왔던 소망과 욕망을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는 7년 만에 그를 만나러 가면서 쉐들러는 더블린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대해 깨닫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즉, 만약 **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멀리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너는 **더블린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D 68, 필자강조)

쉐들러가 더블린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하는 장면은 앞서 “더블린이 너무나도 좁은 곳”(D 61)이라고 한탄하는 도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깬러허와의 만남 이전에는 쉐들러는 더블린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 쉐들러는 ‘성공’에 관해 생각하며, 총각시절에 샀던 ‘집 서가에 꽂혀 있는 시집들을 기억’해 내고, 런던 신문에 자신의 시를 게재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시적인 영감이 떠올랐던 순간을’ 상기하면서 그의 내면은 ‘활기로 가득’찬다. 쉐들러는 자신이 쓴 시에 대해 런던 비평가들이 칭찬하는 장면을 상상(D 66-69)하며 깬

러려를 만나러 가는데, 그는 이것이 “술 취하지 않은(sober) 비예술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D 68)이라고 여긴다. 즉, 그는 지금까지의 더블린에서의 삶을 ‘술 취하지 않은’ 상태이자 ‘비예술적’ 삶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서 멀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은 ‘술에 취한 예술적 삶,’ 즉, 시를 창작하는 삶, 즉, 무엇인가에 흠뻑 취하는 삶이 될 것이다. 특히 ‘술 취하지 않은’이라는 뜻의 ‘sober’라는 단어는 가톨릭이 요구하는 금욕과 금주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의 욕망을 드러낸다. 즉, 이것은 지금까지 가톨릭에 구속되어 활기 없고 건조한 생활을 해 오던 챈들러가, 갤러허와의 만남을 계기로 잠깐 동안이나마 더블린의 구속으로부터 ‘탈출’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상황에 좌절한”(Winston 167) 패링턴은 챈들러보다 더 심각한 마비의 양상을 모습을 드러낸다. 즉, 그는 근무시간에 몰래 빠져나가 술집에 가며(D 84), 돈이 없으면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서라도 술값을 마련(D 88)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패링턴의 면모는 “모든 연민의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Norris 138) ‘마비’된 삶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패링턴이 이처럼 마비적 삶을 살아가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북아일랜드 역양을 드러내는 알레인(Alleyn) 사장(D 82)이 패링턴에게 가하는 비인간적인 대우와 언어적 학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레인 사장이 곧바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왜 자네에게 **항상 싫은 소리를 해야만** 하지? 보들리와 키르완 간의 계약서 사본이 아직 준비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 . . **자네 항상 핑계 대느라 바쁘군** 그래 . . . **차라리 벽을 보고 말하는 편이 낫겠어.** 점심시간은 한 시간 반이 아니라 **30분**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D 83, 필자강조)

알레인 사장과 패링턴의 관계는 권력관계가 명확한 상하관계이며, 알레인 사장의 언어는 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알레인 사장은 패링턴에게 ‘항상 싫은 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박지르며, 비난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일을 시키기 위해 그에게 최소한의 식사시간만을 허용한다. 직원인 패링턴은 알레인 사장이 정한 불합리한 규칙과 폭력적 언어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무실을 “공격적인 화난 목소리”를 통해 “권위적 분노”(Winston 165)를 표출하는 알레인 사장에게 패링턴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임스 조이스는 알레인 사장의 북아일랜드 억양을 통해 제국주의 강대국 영국이 약소국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상황을 알레인 사장과 패링턴의 관계를 통해 암시하며, 아일랜드 남성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바로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패링턴이 ‘땅딸막한’(D 82) 알레인 사장에게 기를 못 펴는 이유이며, 또한 영국 청년인 “웨더스(Weathers)와의 팔씨름이 패링턴의 패배로 귀결되는”(Potts 69) 근본적 이유인 것이다.

패링턴이 현실에서의 이러한 권력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알레인에게 말대꾸를 할 때뿐이다.

“나를 **바보**로 보나? 나를 완전히 **바보 천치**로 보는 것이냐고?”

패링턴은 델라크루 양의 얼굴에서 작은 달걀 모양의 사장 머리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었는데, 그만 **자신이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절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말았다.

“사장님, **그것은 제게 물을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순간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다. . . . 얼굴이 들장미처럼 **시뻘궂게 변한 알레인 사장이 분노한 난쟁이처럼** 입을 썰룩거리며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마구 흔들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 기계 손잡이가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D 86, 필자강조)

여기서 패링턴은 자신을 ‘바보’로 아느냐는 알레인 사장의 수사 의문문에 ‘자신에게 물을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말대꾸를 통해, 알레인 사장을



‘마비’라고 암시하는 “짧은 순간의 승리”(Potts 69)를 맞본다. 이것은 그간 알레인 사장의 지속된 언어적 폭력과 해고 위협으로 인해 패링턴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짜릿한 순간이기도 하다. 적어도 이 순간에 패링턴은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의견과 존재감을 드러낸다. 릴리가 가브리엘에게 말대꾸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적 의견과 존재감을 드러내듯이, 패링턴 역시 말대꾸를 통해 계속 억눌려 있던 자존감을 회복한다. 이 일은 또한 패링턴이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자랑할 무용담이 된다. 비록, 분노한 알레인 사장이 앞으로 패링턴에게 “지옥 같은 삶”(D 86)을 선사하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은 패링턴이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모습에서 ‘탈출’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아일랜드 마비의 전형”(DeVault 82)인 더피이다. 앞선 남성인물들보다 더피가 더 문제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톨릭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무의식은 “육체적 순결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아일랜드 가톨릭”(박윤기 8)에 강박되어 있으며, 그는 “신경증에 걸린”(Seidel 78)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는, 자기 검열을 진행한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살았고 자신의 행동을 의심스러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다. 그는 이상한 자서전적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속에서 때때로 **3인칭 주어**와 과거 시제로 자신에 관한 짧은 문장을 작성하곤 했다. (D 104, 필자강조)

더피는 자신의 몸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억압하며, 자신의 행동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감시할 뿐만 아니라,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서술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무질서를 드러내는 것을 혐오하는”(D 104) 더피의 내면 의식과 연결된다. 더피가 질서와 무질서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서가 맨 위쪽에 있는 “『메이누스 교리문답서』”(Maynooth Catechism)(D 103)가 상징하는 가톨릭이다. 더피는 자신이 세워놓은 높은 도덕성과 자

유의지에 따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믿지만, 이러한 “더피의 주관성은 허구”(Wicht 133)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홍색 깔개’나 ‘자주색 잉크,’ 서랍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사과’(D 103-4)는 모두 그가 억압하고 있는 그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다니는 은행을 터는 상상(D 105)은 낭만적 일탈 욕망을 드러내며, 서가 가장 아래쪽에 놓인 ‘워즈워스 전집(A complete Wordsworth)’은 “숨겨놓은 낭만적 감수성”(Spinks 67)을 노출시킨다. 이처럼 더피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억압하지만, 책상 서랍에 넣고 잊어버린 사과의 희미한 사과 향이 풍기듯이, 그의 욕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며,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피는 가톨릭을 내재화되어 의식을 통제함으로써 몸과 거리를 두고, 자기 검열을 하며, 육체적 욕망을 억압한다. 그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감정적으로 활기 없고” 인간적 온기가 없는 “삭막한 감성”(김상효 217)을 지닌 금욕주의자로 만든 것은, 가톨릭의 속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더피는 사회로부터 “자기 스스로 추방된 자”(DeVault 83) 혹은 “자의적인 고립”(Wicht 131)을 선택한 인물이지만, 무의식의 층위에서는 ‘자주색’과 ‘주홍색’이 암시하듯이, 성적 욕망을 품고 있으며, 시니코 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피는 무기력한 마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더피는 종종 더블린 교외에 있는 시니코 부인의 작은 오두막에서 두 사람만의 오붓한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다. 두 사람은 차츰 서로의 생각이 얽힘이 따라 좀 더 친밀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와 함께 하는 것은 따뜻한 토양 이국의 식물을 감싸주는 것과도 같았다. . . . 차분한 분위기의 어두운 방에 단 둘이 있을 때, 귀에 울리는 음악의 여운이 더해져서, 두 사람은 하나로 결합되었다. 이 결합을 통해 그는 정신적으로 고양되었고, 거친 성격이 부드럽게 변했으며, 더욱 감성화되었다. (D 107, 필자 강조)

더피는 시니코 부인과 친밀해지면서 ‘정신적으로 고양되며,’ ‘거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감성적으로 변해,’ 무미건조한 모습에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적 면모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더피가 가톨릭이 강요하는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삶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순간의 더피는 흑백의 가구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삭막한 방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정신적인 고양’과 타자와 ‘하나로 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그를 지배했던 가톨릭의 강박에서 벗어난 ‘탈출’과 ‘해방’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더피 자신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니코 부인이 육체적 욕망을 드러내자, 그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다시 이전의 고립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시니코 부인의 죽음을 접한 후에야 더피는 비로소 그녀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인식하게 되며, 자신이 느끼는 욕망을 ‘무질서’나 ‘부도덕한 것’으로 잘못 인식했으며, ‘삶의 축제’에서 추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기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곧 가톨릭의 가치관으로부터 그가 벗어나는 결정적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하다.

#### IV. 스티븐의 가톨릭 종교, 가정, 그리고 조국의 속박으로부터의 탈출: ‘실수하기’와 ‘타락하기’

앞서서 『더블린 사람들』에서 영국제국주의 지배와 가톨릭, 그리고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에 억압된 상태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드러내는 마비의 양상과, 이들이 여기에서 탈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욕망 드러내기’와 ‘말대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실수하기’와 ‘타락하기’를 통한 마비로부터의 ‘탈출’의 측면을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의 스티븐의 모습을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의 등장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

의 주인공 스티븐 역시 유년기에서 대학생이 되기까지 가톨릭으로부터 다층적 억압을 경험한다. 어린 스티븐이 신교도인 에일린(Eileen)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가톨릭교도인 단테(Dante) 아주머니는 스티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가 두 눈을 파버릴 것이다”(P 4)라는 노래를 불러준다.

자신과 에일린이 어른이 되면 스티븐은 에일린과 결혼할 생각이었다. 스티븐은 탁자 아래로 숨었고, 엄마가 말했다.  
 “오, 스티븐은 **사과**할거야.” 단테아주머니가 말했다.  
 “오 **사과**하지 않으면 독수리들이 와서 **스티븐의 눈을 빼 버릴 것이다.**”

**눈을 빼 버릴 것이다. 사과해라, 사과해라, 눈을 빼 버릴 것이다.** (P 4, 필자강조)

어린 스티븐이 별 뜻 없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신교도인 에일린과의 결혼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으면 눈을 빼 버릴 것이다’라는 무서운 노래를 스티븐에게 불러주는 단테 아주머니의 행동은, ‘처벌의 종교’로서의 가톨릭의 성격을 드러낸다. 이러한 ‘처벌’의 종교 이미지는 스티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만드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든다. 어린 스티븐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서둘러 기도하는 장면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기숙사에서 옷을 벗으면서 스티븐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들에게 **서두르라고** 말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가스등 불빛이 꺼지기 전에**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뒤에, 자신만의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는 스타킹을 말아 벗고는 잠옷을 **재빨리**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침대 앞에서 **덜덜 떨며**, 무릎을 꿇고는 **가스등이 금방이라도 꺼질까 두려워하며 재빨리, 빠르게** 기도를 반복했다. (P 16, 필자강조)

여기서 스티븐은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신없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총 3번 반복적으로 사용된 ‘quickly’와 ‘hurry up’이라는 단어는 기도를 시간 내에 끝내려는 스티븐의 조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스티븐이 갖고 있는 지옥에 대한 공포는 2장 결말에서 그가 창녀와 잠자리를 한 후 3장에서 끝없이 길게 펼쳐지는 지옥에 대한 끔찍한 묘사를 수반한 설교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3장 전체를 지옥에 대한 설교들과 스티븐의 고해성사만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옥에 대한 그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와 가톨릭이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4장 초반부에서 스티븐이 독실한 종교 생활을 수행하고, 자신의 오감에 대한 극단적인 통제와 철저한 금욕 생활을 실천하는 장면들은 3장의 지옥에 대한 설교가 스티븐의 의식에 미친 강력한 영향을 보여준다. 스티븐은 또한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을 억제하려고 시도한다.

시각을 억제하기 위해서 ... 청각적 고통을 위해 ... 도마에서 칼을 가는 소리나 ... 소음들을 멀리하려는 시도를 일체 하지 않았다. ... 오래된 오줌 냄새와 같은 상한 생선의 악취 ... 이 불쾌한 냄새를 맡으려고 노력했다. ... 미각의 고통을 겪기 위해 ... 교회에서 마련한 모든 금식조항을 준수했고 ... 가장 불편한 자세로 ... 통증이 느껴지도록 했다. (P 162-63, 필자강조)

이처럼 스티븐이 감각적 욕망을 억제하려고 철저하게 시도하는 이 장면은 더피가 자신의 방을 온통 흑백 가구로만 배치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즉, 가톨릭의 가치관을 내재화시켜,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게서 거리를 두는 더피처럼, 스티븐 역시 스스로 인간의 모든 욕망을 억제하려고 시도한다. 스티븐은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문자 그대로 ‘마비’시키고자 시도한다. 더블린을 탈출하지 못하고 ‘하얗게 질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짐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블린이 『더블린 사람들』의 대표적 ‘마비’의 이미지라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각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감각의 ‘마비’를 시도하는 이 장면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대표적 마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븐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성직자가 되겠다는 제안을 받고난 직후에 가톨릭의 이러한 가치관에 결코 공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지금까지 영혼의 성소라고 상상해왔던 곳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이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 . . 오랫동안 그를 지배했던 질서와 복종의 힘이 너무도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놀랐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권리와 성직의 신비와 권능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질없이 반복되는 . . . 그의 운명은 사회적 질서와 종교적 질서를 회피하는 것이었다. (P 175, 필자강조)

스티븐이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장면에서 그는 ‘영혼의 성소라고 상상했던’ 가톨릭, 즉, ‘그를 지배했던 질서와 복종의 힘’이 이제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과 교회의 영광이나 성직의 신비나 권능이 ‘부질없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자신의 감각과 욕망을 억압하게 만들어 ‘마비’의 삶을 강요했던 ‘종교적 질서를 회피’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스티븐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다시 세운다.

그는 . . . 자신만의 지혜를 배울 운명이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 가운데서 방향하며 . . . 세상의 유혹은 죄의 방식을 통한 것이었다. 그는 타락할 것이다. 아직 타락하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조용히 타락할 것이다. . . . 영혼은 타락하고 또 타락할 것이다. (P 186, 필자 강조)

여기서 스티븐은 가톨릭의 질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타락’을 선택한다. 2장 결말 부분에서 이미 육체적 ‘타락’을 경험했던 스티븐은 이제 정신적 ‘타락’을 선언한다. 스티븐은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타락’할 것

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가톨릭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스티븐은 이렇게 ‘타락’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여 사용하고, 특히 영혼이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가톨릭에 대해 “정신과 육체가 결합한 저항”(Farrell 33)을 드러낸다.

신교도와 결혼하겠다는 어린 스티븐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눈알을 빼 버리겠다는’ 위협으로 시작된 가톨릭 종교의 억압, 스티븐의 ‘육체적 타락’ 이후에 지옥에 대한 무시무시한 묘사가 길게 이어진 설교(P ch. 3)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처음에 스티븐은 이러한 가톨릭의 권위에 복종하고, 가톨릭이 강조하는 교리와 금욕주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구속과 속박의 부당함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오감만족의 욕구나 성적 욕망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마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톨릭이 강조하는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즉, ‘실수하기’와 ‘타락하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순간인 ‘창녀와 경험’(P 107-08)의 순간과 바닷가에서 새 소녀를 보며 앞으로 자신이 추구할 세계에 대한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P 185-86)은 가톨릭의 질서에서 벗어나 스티븐 자신만의 세계를 인식하는 순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그 순간에 그가 느끼는 황홀감과 격앙된 감정은 마비상태와 대조적인 생의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녀의 팔에 안겼을 때, 별안간 그는 자신이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이 없어졌으며 자신에 대한 확신의 감정이 들었다. . . . 스티븐은 그녀에게 굴복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녀에게 모두 내주고 눈을 감았다. (P 107-08, 필자강조)

스티븐의 눈앞에 한 소녀가 . . . 신비하고 아름다운 바닷새로 변해 . . .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길고 가는 소녀의 두 다리는 마치 학의 다리처럼 우아했고, 맨 살 위에 . . . 소녀의 풍만한 허벅지는 . . . 거의

영덩이까지 맨살을 . . . 속옷이 . . . 소녀의 이미지는 스티븐의 영혼 안으로 영원히 침투했다. 그는 **황홀경 속에서 . . . 살고, 실수하고, 타락하고, 승리하고, 삶 속에서 인생을 재창조할 것이다!** (P 185-86, 필자 강조)

창녀와의 육체적 결합은 스티븐은 ‘강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없애주며,’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든다. 한편으로 새 소녀의 이미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맨살’이라는 단어와 ‘속옷’은 소녀의 육체성과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이 새 소녀의 이미지를 통해 스티븐이 받은 영감의 내용이 ‘황홀경’이나 ‘황홀한 순간’은 표현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제 스티븐은 그를 지속적으로 속박하던 가톨릭과 국가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그 모든 것들이 강요하던 ‘마비’의 상태에서 ‘탈출’하여,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실수’하고 ‘타락’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재창조’ 할 것이다.

## V. 나가며

제임스 조이스는 가톨릭과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정치적 지배와 맞물려 아일랜드 인들을 속박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더블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의 모습과, 그로부터의 탈출 시도, 탈출의 순간들, 그리고 탈출 실패의 양상을 유년기/청년기/중년기 등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 놓인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었고,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이것을 스티븐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 그의 정신적 성장과 맞물리는 탈출의 양상을 포착하였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하얗게 질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이미지로 등장해서 극도의 마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블린은 아일랜드를 탈출하던 혹은 아일랜드에 남든 희망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처지를 드러낸다. 즉,



이는 ‘탈출’은 단지 물리적 ‘공간’을 탈출하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탈출이 수반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블린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여성들에게 가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가톨릭과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에서 의식적인 ‘탈출’이 가능한 순간을 가브리엘에 대한 릴리의 말대꾸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도란을 유혹한 폴리를 통해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일을 혼자서 처리할 줄 아는 단호한”(D 56) 성격 가진 무니 부인이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의 별거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하숙집을 열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드러냈다. 또한 시니코 부인이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주도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역시 여성에게 강요된 순결성과 수동성에서 ‘탈출’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남성 인물들 역시 ‘욕망 드러내기,’ ‘말대꾸,’ ‘술취하기,’ ‘타락하기’ 등의 방식을 통해 비록 짧은 동안이지만, 강력한 가톨릭의 권위나 현실적 권력관계를 전복시키는 효과를 내온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 역시 자신의 욕구와 가톨릭 종교의 가치관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처음에는 가톨릭의 질서와 가치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이 가톨릭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뒤에, ‘실수하기’와 ‘타락하기’를 통해 가톨릭 종교에 대한 정면 도전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본성의 충동 때문에 가톨릭교회에 남는 것이 불가능”(L. II 48)했던 조이스와 마찬가지로, 스티븐은 가톨릭의 금욕주의와 내세주의를 부정하고, ‘현실’에서 ‘실수’하고 ‘타락’하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마비’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하는데, 스티븐의 이러한 의식적 정신적 탈출은 5장 결말부분에서의 ‘더블린’(혹은 아일랜드)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탈출의 상징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분명하게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용문헌

- 김상효. 「가슴 아픈 사건: 더피의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제임스조이스저널』, 27권 2호, 2011, pp. 211-32.
- 박윤기.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아일랜드 가톨릭교와 신부들의 이미지」. 『문학과 종교』, 23권 3호, 2018, pp. 95-14.
- Barlow, Richard. *The Celtic Unconscious: Joyce and Scottish Culture*. Notre Dame UP, 2017.
- Boes, Tobia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the Individual Rhythm of Modernity.” *ELH*, vol. 75, no. 4, pp. 767-85.
- Boheemen, Christine van. *Joyce, Derrida, Lacan and the Trauma of History: Reading, Narrative, and Postcolonialism*. Cambridge UP, 1999.
- Brown, Richard. *A Companion to James Joyce*.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2008.
- DeVault, Christopher M. “Love and Socialism in Joyce’s ‘A Painful Case’: A Buberian Reading.” *College Literature*, vol. 37, no. 2, 2010, pp. 78-102.
- Eide, Marian. *Ethical Joyce*. Cambridge UP, 2002.
- Eide, Marian & Mahaffey, Vicki. “The Small Light in ‘A Little Cloud’.”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edited by Vicki Mahaffey, Syracuse UP, 2012.
- Farrell, Kevin. “The Reverend Stephen dedalus, S.J.: Sacramental Structure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JJQ*, vol. 49, no. 1, pp. 27-40.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California UP, 1982.
- Ingersoll, Earl G. “The Stigma of Femininity in James Joyce’s ‘Eveline’ and ‘The Boarding House’.”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30, no. 4, 1993,

pp. 501-10.

- . "The Psychic Geography of Joyce's *Dubliners*." *New Hibernia Review*, vol. 6, no. 4, 2002, pp. 98-107.
- Jang, Sungjin. "Wandering Multiple Pathways 'Labyrinth-spiel' and Joyce's Mazed 'Wanderingrocks'." *JJQ*, vol. 22, no. 1, 2016, pp. 103-19.
- Joyce, James. *Dubliners*. Penguin Book. 1992.
-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 2000.
- .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Ellmann, Viking, 1975.
- . *Letters*. vol. 2, edited by Richard Ellmann, Faber & Faber, 1966.
- Kochis, Matthew J. & Heather L. Lusty. *Modernists at Odds: Reconsidering Joyce and Lawrence*. Florida UP, 2015.
- Lawrence, Karen R. *Who's Afraid of James Joyce?*. Florida UP, 2010.
- Lernout, Geert. *Help My Unbelief: James Joyce and Religion*.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0.
- . "European Joyce." *A Companion to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Brown,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2008, pp. 110-25.
- Mahaffey, Vicki.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Syracuse UP, 2012.
- . "Dubliners: Surprised by Chance." *A Companion to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Brown,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2008, pp. 36-51.
- Nash, John. *James Joyce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UP, 2013.
- Nolan, Emer. "Joyce and the Nineteenth-Century Irish Novel." *James Joyce in the Nineteenth Century*, edited by John Nash, Cambridge UP, 2013.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Pennsylvania UP, 2003.
- Platt, Len. *James Joyce: Texts and Contexts*.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1.
- Potts, Willard. *Joyce and the Two Irelands*. Texas UP, 2001.

- Rabaté, Jean-Michel.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Egoism*. Cambridge UP, 2001.
- Riquelme, John Paul. "Desire, Freedom, and Confessional Culture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 Companion to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Brown,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2008, pp. 51-71.
- Robinson, Richard. "That Dubious Enterprise, the Irish Short Story: The Utilised Field and *Dubliners*." *James Joyce in the Nineteenth Century*, edited by John Nash. Cambridge UP, 2013.
- Seidel, Michael. *James Joyce: A Short Introduction*.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2002.
- Spinks, Lee. *James Joyce: A Critical Guide*. Edinburgh UP, 2009.
- Stewart, Bruce. *James Joyce*. Oxford UP, 2003.
- Wheatley-Lovoy, Cynthia D. "The Rebirth of Tragedy: Nietzsche and Narcissus in 'A Painful Case' and 'The Dead'." *JJQ*, vol. 33. no. 2. 1996, pp. 177-93.
- Wicht, Wolfgang. "'Eveline' and/as 'A Painful Case': Paralysis, Desire, Signifiers." *European Joyce Studies*, vol. 7. 1997, pp. 115-42.
- Winston, Greg. *Joyce and Militarism*. Florida UP, 2012.
- Wright, David G. "Joyce and New Zealand: Biography, Censorship, and Influence." *A Companion to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Brown,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2008, pp. 243-58.

## Abstract

### The Dialects of Paralysis and Escape in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Revealing Desire,’ ‘Retort,’ and ‘Falling’

Young-shim Lee

The rule of British imperialism over Ireland, the Catholic, and the patriarchal ideology are the main factors which oppressed the Irish people of Joyce's time. Both *Dubliners* and *A Portraits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show the paralysed life because of those factors and the attempts of escaping from that situation. The former describes the lethargic and paralyzed experiences of various people from different ages and the latter focuses on Stephen and portrays his various experiences of being oppressed and his escaping process from them. In fact, escaping from the paralysis that dominates Dublin means not only ‘escaping’ from the physical ‘space’ of Dublin but also ‘escaping’ from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place’ of Dublin.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aspect of paralysis and the escaping attempts from it, by means of ‘retort,’ ‘revealing of human desires including sexual one’, and ‘falling’ in both texts. Just as Stephen's escape from Ireland has a important symbolic meaning, *Dubliners*' attempt to escape itself is very meaningful for the process of ‘escaping from paralysis’.

■ Key words :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aralysis, escape, Catholic church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마비, 탈출, 가톨릭교회)

논문접수: 2022년 5월 31일

논문심사: 2022년 6월 1일

게재확정: 2022년 6월 24일